

비지정 성보 보존대책 시급

순천 선암사등 후불탱화 도난

남원 도로확장으로 마애불 훼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지 않는 불교유산들이 잇달아 도난·훼손되고 있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양산 내원사 노전암(주지인)에 7일 오전 4명이 침입해 후불탱화를 도둑맞았다. 순천 선암사(주지 인공)에서는 16일 대웅전의 후불탱화를 도난당했으며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에 소재한 마애여래좌상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크게 훼손됐다.

노전암 '석가모니' 후불탱화의 경우 다행히 방탄유리에 보관해 놓았고, 능인스님등 3명의 비구니스님들이 과한들과 대적해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가로부터 5km 떨어진 외진 곳에 노전암이 위치해 있고, 양산경찰서는 여지껏 용의자 탐문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석가모니' 후불탱화가 도난 위험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선암사에서 도난된 후불탱화는 1765년에 제작된 가로 5m 세로 3.7m의 '영상화상도'. 순천경찰서는 탱화의 무게와 크기로 미취 차량을 동원한 문화재전문 절도범의 소행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암사는 지난해 2월경 응진전과 불조전 탱화 3점을 도난당한 전례를 가지고 있고, 당시 사건 수사도 순천경찰서에서 전담했지만 절도범과 탱화를 찾지 못했다.

전북도가 삼성물산에 맡겨 남원-주천간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서 멸실 위기에 놓인 '마애여래좌상'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고려초 새겨진 높이 117cm 폭 94cm의 마애불 주변은 이미 파헤쳐져 복구불능의 상태로 파괴됐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여서 공사를 진행시킨 후야 마애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토사학자들은 10여년전 남원문화원에서 돌표지판을 세웠고, 이 지역 지명이 '부처모퉁이'인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로 '비지정문화재'라는 것.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법적 보호와 관리가 소홀하고, 회수율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을 검거해도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실정이라 도난사고가 빈발한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가들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사찰에서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해당문화재의 영상 및 문헌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hia.com)

봉원사 순환도로 건설 취소

신촌 봉원사 경내를 관통하는 안산순환도로 추진 계획(본지 208호 2면 기사 참조)이 취소됐다. 봉원사(주지 인공)는 서대문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산순환도로 건설이 전통사찰인 봉원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왔다.

봉원사 뿐 아니라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용욱교수(철학자), 이영덕 전 국무총리,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 등 30여 사회지도층 인사들 역시 '안산순환도로 개설 저지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안산의 중허리를 뺄 뚝도 내려는 이 순환도로는 주택지역을 공해와 소음에 휩싸이게 할 뿐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산림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봉원사 등 지역 사찰과 주민,

학생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서대문구는 14일 "환경훼손의 위험이 있다면 순환도로 건설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hia.com)

불교인문문화제 추진
실천불교승가회 6차 정총
실천불교정국승가회(회장 정화)는 12일 남양주 흥국사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관건립 등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불교인문문화제 개최, 재가와 연대하는 불교공동체 발족 등 사회 환경 통일 인권 운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주요 사업은 △ 4·10 5주년 기념총책출판 △ 제1회 불교인문문화제 개최 △ 한국현대불교운동사 발간 △ '새로운시대'를 열어 가는 불교공동체(가칭) 창립 지원 등이다. 김일우 기자

뉴스 & 뉴스

30일 신행단체장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30일 오후 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직장직능 신행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인불자회, 한국동신불자회, 지하철법우회, 방송인불자회 등 30여개 단체 장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날 간담회는 각 단체 법우회 활성화 방안과 종단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도필선 기자

일 조동종 중정 24일 방한
일본 조동종 중정 이따하시 쯔우슈우 스님이 고불총림 백양사 서용스님과의 면담을 위해 24일 방한한다. 쯔우슈우 스님은 25일 백양사를 방문해 21세기를 맞는 한국과 일본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용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어 중앙승가대 불교TV, 불교복지관, 길상사 등을 방문한다. 26일 오후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도 예방한다. 이경숙 기자

'깨·샤'를 '자비의 대중화'로
조계종총무원이 전개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자비의 대중화'로 명칭을 바꾸고 이미지 변신과 새로운 실천운동 모색에 나섰다.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민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등 3원장과 중앙승가대 부·실장 등은 16일 총무원 청사 정문에서 '자비의 대중화' 현관식을 가졌다.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 총무원 출범에 따른 이미지 변신과 함께 불교정신을 국민대중에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금산사서 영호남 교류법회
한국전기사찰자연협회 전주지역 회(회장 최병익)는 25일 오후1시 김제 금산사에서 영·호남 운전기사 등 불자 5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합동 법회를 봉행한다. 전국 21개 운전기사 불자연 지역회와 23개 신행단체 회원과 지도부, 지역유력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 하는 이날 법회는 단체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한민족 공동체로서 서로 화합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찬21세기 새 천년을 이룩하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필선 기자

btn 1천원 모금운동
불교TV(대표이사 신허스님)는 17일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제5기 불교TV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1천원 모금 및 주주 1인당 10명 후원인 모집 운동'을 전개기로 했다. 3명의 이사과 2백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신일 이사과 청안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의원)을 선출하고 임기가 만료된 다섯 명의 이사를 재선임했다. 또 98년 손실금인 36억여원에 대해서도 항목별 보고를 거쳐 승인했다. 김주일 기자

"정치수배 해제"

고산스님, 김대통령에 건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13일 김대통령에게 구정권한 정치수배자들의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고산스님은 건의서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인 미명하에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영여의 몸에서 풀려나지 않음에도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생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수배 조치의 해제야말로 인간존중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동서화합 운동본부 4월 창립

타종교와 연대 '지역감정 해소' 전국운동 전개

망국적이고 고질적인 지역감정 해결을 위한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가 창립된다.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 창립준비위(위원장 진관스님)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4월경 공식창립식을 갖고 동서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요사업으로 교구본사차원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동서화합위한 수행책자발간, 신행단체와 사찰간 교류 확대, 세미나

를 통한 동서화합의 불교이념정립 등을 실시기로 했다. 이와함께 타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동서화합의 전국적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동서화합추진위는 '정치권에 보내는 글'을 채택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족단합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일우 기자

스님 7명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맨발만행



스님 7명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맨발만행

남한국도 2천8백리를 정장 33일만에 걸쳐 순례하는 제4회 평화통일 기원과 소년 소녀기장들기 맨발국토순례 입재식이 18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봉행됐다. 이번 순례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진성 덕암 철학헌 해명 송암 법인 스님 등으로 4월19일 오전 11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회합한다. 이 순례는 현대 프로덕션(실장 김인기)이 동행 영상에 담는다. 이경숙 기자

봄가지개 펴는 신행단체들

- 우리는선우 - 시민선우회 활동
- 불교신행연구 - 티벳스님 지원
- 염불만일회 - 대발심 성지대회
- 맑고향기롭게 - 결식아동 후원

겨울동안 움츠렸던 신행단체들이 새 봄 새로운 활력을 전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신행력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선우회 활동을 시작한다. 종교평화대행·인권·통일·생명·환경운동 등 관심을 갖고, 불교신행활동을 사회적으로 회향 계획이다. 더불어 불교바라세우기재가연대와 불교문화교류 등 연계단체 지원연대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행하는 티벳 스님들의 교육지원과 노인과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홍 등 새 사업을 전개한다. 또 군불교 진흥을 위해 (법공양)에 군법사들의 글을 매월 한 편씩 실어 군불교의 현황을 알리고, 영주 보내기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불교용품과 기념품 개발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결식아동 후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 54명의 결식아동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개해온 생태기행과 실직자 무료급식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국 지회에서 생태기행과 환경지킴이활동, 장애인후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맑고향기로운 세상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해장스님·보광스님·김재일)는 상반기중 산스크리트어 <아미타경>을 번역할 간하고, 8월 초 건봉사에서 대발심 성지대회를 연다. 또 9월에는 정토화회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지난해에 이어 염불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hia.com)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회장 불신임' 회장 1인 집권체제(?) 등 지난해부터 불거져온 내부적 갈등과 최근 조계사 '중앙사무국 분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은 25만 명의 회원들 가운데 '한국 불교 최대의 청년조직'이라는 대불청의 자존심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월 선출된 이상대 회장은 '독단적 운영'을 이유로 대의원들로부터 탄핵 압력

을 받고 있다. 정관계정과 법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청년회원들의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 사태와 관련, 현 총무원의 실기를 건드려 패심회(?)가

만 전국회원을 자랑하지만 회원들의 회비조차 제대로 걷지 않아 매년 조계종 지원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재가단체의 위상정립에서 '재정적 자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 이해관계에 얽혀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일력다름'도 대불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화합하지 못하는 집단은 스스로 좌초된다. 지구의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한국 최대의 청년조직으로의 다시 자리매김하는 대불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jekim@buddhaphia.com)

김정은 (취재 부 기자)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십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산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 입 안 내

- 합본 제4집: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55cm』
- 구입 가격: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곧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액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곧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질(배곧)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의 성분이 신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배곧)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곧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곧"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커다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아미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곧(신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썹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물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매달리는 증상(0)아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심한 편이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예민하니 신경성이 있다
7. 무릎이 아파서 외출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덜이 갈고 타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개월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